

신안해저유물 방문자센터 증도에 들어선다

사업비 80억원 투입 2026년 완공 700년 전 출항 '신안 보물선' 재현 유물 디지털콘텐츠 체험·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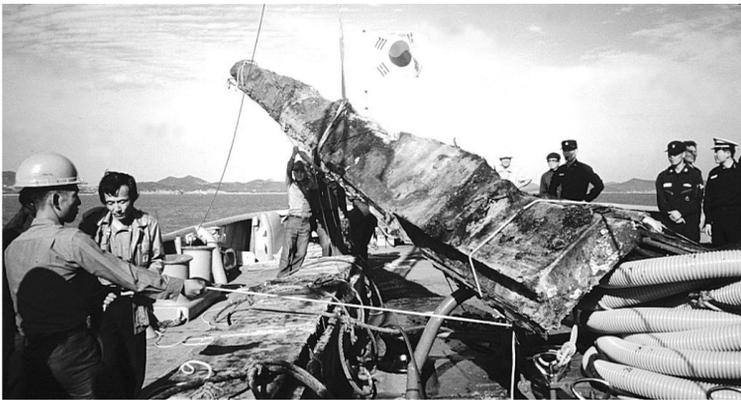
신안군이 '해저유물 방문자센터'를 건립해 700년 전 출항한 신안 보물선을 재현한다. 신안군은 올해 문화재청 주관 '신안해저유물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0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방문자 센터는 '신안선' 발굴 해역이 있는 증도면 방축리에 들어선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 뒤 내년 건축공사를 시작,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방문객들에게 신안해저유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 힘쓴다.

해저 유물을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고, 미디어아트 기술을 도입해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10여 년 전부터 '보물섬'으로 알려진 증도에 신안선 발굴기념관, 증도해저유물 테마파크, 신안선 해저 유물 체험관 등 다양한 기념시설 건립을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해왔다.



오는 2026년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에 '해저유물 방문자센터'를 건립해 700년 전 출항한 신안 보물선을 재현한다. 신안해저유물 인양 유물을 선상에서 정리하는 모습. <신안군 제공>

지난 2019년 신안해저유물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광주박물관으로 전부 이관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신안군은 계속해서 문화재청과 국회에 박물관 건립 지원을 요청했다.

신안군은 대한민국 수중 발굴의 출발점이 된 신안선 발굴의 역사적 가치 확산과 문화유산 향유 기회 증대를 위해 신안해저유물 방문자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1976년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어부의 그물에 건져 올라온 도자기로 시작된 신안선 발굴은 14세기 동아시아의 대외교역과 찬란했던 도자기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2만7000여 점의 해저 유물을 선보였다.

1984년까지 9년 동안 11차례의 수중 발굴에 동

원된 잠수사는 총 9869명이었다. 이들은 3000시간 잠수해 유물 인양 작업을 했다. 인양 기간 모든 국민은 물론 해외 학계의 높은 관심 속에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 해군지원단(심해잠수사), 전남도, 신안군, 목포경찰서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됐다.

발굴 조사에서 인양된 유물들은 바지선과 해군 함정에서 1차 세척을 거쳐 지도읍의 발굴본부에서 분류한 다음 국립중앙박물관과 목포의 문화재보존처리소(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보내졌다. 그 후 1986년 발굴 해역 인근에는 기념비만 세워졌으며 발굴된 수많은 유물은 서울로 가버렸다.

한편 신안선은 1323년 중국 원나라의 절강성 닝보(寧波)항을 출항해 일본 규슈의 하카타(博多)항으로 가던 무역선으로 향해 도중 한국의 신안 앞 바다에서 침몰했다. 배의 규모는 최대 길이 34m, 너비 11m로 200여 명이 승선하는 초대형 무역선이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신안해저유물 관련 시설의 국비 지원 확정을 통해 역사적인 발굴의 현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신안해저유물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새벽배송

방문 구입·운반 불편 해소

영광군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신규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새벽배송 서비스(사진)를 도입한다.

예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는 공동주택·음식점에서 다량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하는 용기로 수거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군청을 방문해 구입하고 직접 운반까지 해야 했다.

노약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수거용기 직접 운반에 어려움이 있고 1인 사업장은 수거용기

구입을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사업장을 비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화로 수거용기 구입을 신청하고 가상계좌에 수수료가 납부하면, 다음날 새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시 수거용기를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그동안 불편했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새벽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도입 후에도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정원 기자 kcw@



목포해양대 창업지원단 '해양IN(인) 커뮤니티'

수산자원 가치 창출 방안 등 논의

목포해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은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한 '해양IN(인) 커뮤니티' 행사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행사는 목포해양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을 비롯해 전남지역 해양수산 기창업 기업 및 창업관련 교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창업지원단은 전남지역의 해양수산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 관계기관 및 산업체 등과 대학 창업지원단 간의 교류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IN(인) 커뮤니티'를 구축해 활동해오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이번 행사에서는 목포대학교의 메이커스페이스 활용 성공 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전남 해양수산자원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지식재산권 변화에 대한 정보 소개, 전문가들의 참석기업 멘토링을 통한 커뮤니티 확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원원 창업지원단 단장은 "이번 해양IN(인) 커뮤니티는 참석자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해양 특성화 대학과 해양 관련기관·기업 간에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

영암군 공공산후조리원 의료기기 마련 지정 기부 1668건 1억7300만원 모금

영암군이 공공산후조리원 의료기기 마련 고향사랑 지정 기부로 1668건 1억7300만원을 모금했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군은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 고향사랑기부를 진행했다.

영암군에 설립될 공공산후조리원의 의료기기 구입비를 전국에서 후원받아 아이와 산모를 안전하게 지켜내겠다는 취지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계획은 2022년 '영암군 공공 의료보존 서비스 인식조사'에서 시작했다.

조사에서 영암군 임신부의 76%가 산후조리원이 없어 다른 지역의 시설을 이용했다고 밝혔고, 78%의 산모는 영암에 산후조리원이 생기면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군은 이런 요구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로 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의료기기는 고향사랑기부로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모금에 들어갔다.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 기부자 중 57%가 남성 이었고, 연령대도 30대가 40%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정기부 모은 고향사랑기부금을 2027년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심장충격기, 비접촉식 수면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의료기기 마련에 쓸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공감해 주신 1668명의 기부자에게 감사 드린다"며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살리는 일에 기부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255억원 투입

배수 개선 등 농업 기반 정비

완도군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 생산 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완도군은 255억원을 들여 충도와 삼산지구 배수 개선을 비롯해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흙 수로 구조물화,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를 한다.

배수 개선 사업은 저지대 농경지 침수에 대비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와 위·수탁을 체결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되거나 파손돼 기능이 저하된 농업 생산기반 시설물은 정비 대상지 전수 조사를 마쳤으며, 소안 가학제, 금당 삼산제, 신지 월양제 등을 대상으로 개보수 사업을 편다.

봄 가뭄 대비 읍면별 실정에 맞는 농업용수 공급 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농업 생산 시설물을 개선해 기후변화에 따른 영농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